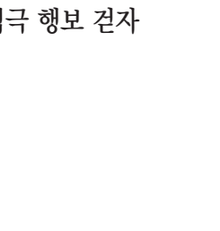
현불 논단

기후위기 극복, 종단이 나서야


민정희
국제기후종교
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지구촌 전역 기후재난에 몸살
기후시스템 붕괴 막기 위해선
기온 상승량 1.5℃ 제한 권고

에너지 저장에 광물 30억t 필요
재생에너지전환 근본 해결아냐
에너지 수요 줄이는 노력 해야

정부 정책 속 소비 감소 유도
종단 차원서 적극 행보 걷자

기후재난이 지구촌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덥고 건조한 기후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 폭설이 내렸고 중동과 미국에는 이상 한파가 닥쳤다. 모두 지구 기온 상승으로 야기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후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해왔다. 유엔 산하의 과학자그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은 2010년 기준 온실가스량의 45% 이상 줄이는 것이다.

IPCC의 권고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전망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엄청난 양의 광물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하기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흑연, 리튬, 코발트와 같은 광물추출량이 2050년까지 50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발전과 에너지 저장에 광물과 금속이 30억 톤 이상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대수는 14억대로, 2050년이면 약 20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자동차 모두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자동차의 전기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계통의 금속 네오디뮴(neodymium)과 디스프로슘(dysprosium)의 연간 추출량이 70% 이상 늘어야 한다. 또한 구리는 2배, 코발트는 4배 이상 추출량을 늘려야만 전기자동차로 모두 바꿀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100% 줄일 수 없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물자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야 생태계에 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관심을 많이 얻지 못했으나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는 '저에너지수요(Low Energy Demand, 이하 LED)' 시나리오가 소개되어 있다. IPCC보고서는 '탄소포집과 저장(CCSU)'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술이나 안전문제가 있는 핵발전보다는 LED시나리오가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 LED시나리오는 전 세계 물자생산과 소비를 줄임으로써 에너지수요 감소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고장 시 수리의 권리를 보장하며, 새로운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기업들의 '계획된 진부화'를 금지하며, 공공장소의 상업광고 게시 금지 정책을 만들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이 시나리오는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전원의 플러그를 뽑는 개인 행동이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기후과학자들은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할 경우, 정부의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교 종단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더불어 생산과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제도화된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서 불교적 가치와도 잘 들어맞는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세계관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추동시킴으로써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기계론적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종단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신도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행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社 說

코로나, 랜선기부 정착 기회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불교계 기부처가 크고 작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흔히 기부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어떻던 간에 기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은 변한다. 주변에 직접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고 싶지만, 다시 돌아서면 그 돕고 싶은 마음은 잊힌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부 후원이 급감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한 듯 싶다. 대면 접촉이 차단되자 기부를 하던 이들도 기부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지금, 우리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에서는 현재 QR기부, 모바일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클라우드펀딩이나 해피빈 등 온라인 공동모금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불교계에도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SNS를 통해 활동을 알리고,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디지털 에이징이라 일컬어지는 교육과 함께, 문자, 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기부를 장려해야한다.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소 멀어졌다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아니 더 많아진다. 이러한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불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명확하다. 랜선 기부로 일컬어지는 온라인 기부 활성화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한 MZ세대의 전법 포교, 봉사 기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전 연령대의 랜선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이제 새롭게 머리를 맞대자.

'미얀마 평화', 한국불교계 관심 필요

'야간 순찰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 군 저격수가 쏜 실탄에 맞아 사망, 동네 야간순찰 중 사망, 가슴에 총상을 입어 사망, 경찰 구타로 사망.'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부의 폭력적 진압에 다치고 체포당하는 미얀마인들이 있다.

2월 25일 군부독재에 맞서다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는 추모기도회에서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망 원인을 하나하나 읽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러져간 광주시민들을 생각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미얀마의 현재는 과거의 우리다. 그들이 처한 고통은 과거 우리의 고통이었다. 지금 우리가 영위하는 자유와 평화는 과거 독재에 맞선 수많은 희생의 결과물이다. 미얀마의 현재에 한국사회, 그리고 자비와 평화를 사랑하는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과 살생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바른 인식이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에서도 용인되지 못한다.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의 악업을 멈추고 미얀마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돌려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불교계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미얀마인들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새해 선물과 부처님

설날 합동차례를 지낸 후 떡과 과일 등을 포장해서 병동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병실은 텅텅 비어서 어느 병동은 환자보다 간호사들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작년 이맘때 만났던 환자가 생각났다. 어느 병실에서 한 환자가 나의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이웃 종교의 신자인가 싶어 고개 인사를 하자, 환자는 "스님"하고 나를 불러세웠다. "아, 혹시 불자님이세요"하고 물으니 고개를 끄떡였다. 내가 다가가자 반가움인지 모를 눈물을 떨구는 환자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스님 제가 부처님을 정말 까마득하게 잊었어요"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만 몇 번을 반복했다.

환자는 30년 이상을 신심있는 불자로 살았다고 한다. 사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정도로 기도와 봉사로 자신의 삶을 꾸리는 신심을 자신하는 보살이었다. 가족과 사찰의 스님, 신도들도 인정하는 신심이었고,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 이만하면 부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석 달 전 말기암 판정을 받고 여기저기 병원을 떠돌며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찾고, 수술을 앞두게 되는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석달동안 부처님을 잊고 오로지 '병'에 매달렸다고 말하며 망연자실해 하였다.

"제가 어떻게 부처님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나를 바라보는 보살에게 나는 어깨를 토닥이며 "보살님이 너무 놀래고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위로하였다.

"부처님께서 스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30년을 했던 염불이 공염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왜 절을 다니다 말다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었네요."

자꾸 자신의 신심에 대해 자책하는 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보살님, 공염불이 아니었으니 저를 보고 얼른 부처님을 기억하셨죠. 이제 새해 첫날 부처님을 기억하게 되셨으니 이제 해야 할 염불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살은 그제서야 얼굴에 자신감이 돌며 그동안 자신이 해온 기도에 대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금강경〉을 하루에 3독하고 〈천수경〉을 읽었고, 〈법화경〉 사경을 세 번해서 탑 속에 넣었다고.

신이 나서 설명하는 환자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하였다. 새해 첫날 부처님께 올렸던 떡과 과일이 든 봉송을 받고 '새해선물'이라며 기뻐하던 모습이 병동을 도는 내내 선하게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